과녁을 빗나간 마음이 스스로 과녁 된다

(딤후4:1~8)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과녁을 빗나간 마음이 스스로 과녁 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과녁을 빗나간 마음이 스스로 과녁 된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엊그제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했다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남자 분들은 그럴 거예요.
짧은 머리카락들이 나오는 경우가 여자분들 머리하실 때가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머리할 때는 짧은 머리카락들이 얼굴과 귀 쪽으로 막 떨어집니다.
그게 바닥에 다 떨어지면 좋은데, 눈 같은 데, 콧잔등이나 귓속 같은 데로 머리카락들이 들어가면, 가운으로 둘렀으니 손은 꼼짝 하지 못하는데 가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눈을 꿈쩍꿈쩍 하기도 하고 하는데, 긁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말 죽겠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각 스펀지를 가지고 머리카락을 계

속 털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보면 귀 가려움증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이 좀 잘못될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귀 가려움증입니다.
이 귀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과녁을 벗어나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마음이 과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바울의 인생에 마지막 전해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도 귀에 익은 말씀,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디모데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다가 실망을 해버릴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만 주저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상태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3, 4절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항상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거라는 기대 쪽으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직무를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제 직무에 충실할수록 설득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 직무로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전하게 될 말씀만이 진리고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럽게도 이걸 벗어나서 다른 교훈을 따르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많은 스승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연히 여겨라, 절대 여기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라.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지고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두게 됩니까?
마음이 빗나가서 그런 거지요.
마음은 비어져 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내가 좋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으로 채웁니다.
그걸 가지면 참으로 내가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들로 마음을 채웁니다.
마음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향해 갑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빗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 빗나간 대상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이 날아가서 꽂혀야 되는 유일한 과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녁을 벗어나 다른 것을 담았습니다.
사업을 잘해야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빗나가서 사업에 적중했습니다.
자식을 잘 길러봐야지, 연예인이 돼서 인기를 얻어 봐야지, 목사가 돼서 큰 목회를 해봐야지, 다 빗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빗나갈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이 들어왔잖아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귀가 가렵습니다.
귀가 가려워져서 무얼 원하게 되느냐 하면, 누가 내 마음을 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당신을 향해 쏘기를 바라고 당신에게 우리 마음이 적중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담자마자 귀가 가려워지면서 누가 좀 내 마음을 적중시켜서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없나 찾게 됩니다.
다른 교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뭐냐 하면, '누가 돈을 벌고 싶은 내 마음에 적중하는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기다리고 있지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무탈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형통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가렵지 않습니까? 좀 적중하는 말씀들이 내 마음에 꽂혀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게 되면, 누구나 다 자기 마음을 과녁으로 내놓으면서 가려워진 내 마음을 누가 쏴줄 수 없을까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면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알레르기죠, 이게 죄에요.
죄가 무르익어가는 과정이지요.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그걸 긁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자꾸 목회자 세미나를 다닙니다.
왜 그렇지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고 성공할 것인가를 마음에 딱 담으니까, 그게 가려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세미나에 갖다 들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 수를 늘릴 것인가의 말씀이 마음에 꽂히기를 바라고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디모데 네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절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뭔가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들은 말씀인 '하나님만을 사랑하자'는 이런 말 한 마디가 콱 마음에 배기는 겁니다, 택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말씀을 전하는 건 택한 사람들을 찾아내자는 거지요.
그러므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마음의 과녁이 벗어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돌릴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의 내용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죽으라는 얘기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 거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십자가의 주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게 많은데, 십자가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또 동시에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들을 염두에 두고 3절과 4절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디모데 자신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디모데에게 십자가를 생활화하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라야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를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도 재밌어요.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라는 말로도 될 수 있고, '네 마음에 내키든지 안 내키든지'

라는 말도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맞아요, 원수 같아요.
전하라는 말입니다.
내키지 않고 전한다고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꼭 내가 내켜서 전한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해요, 정말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으로 겨우겨우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했는데,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기뻐서 '빨리 뛰어올라가서 전해야지'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를 다하는 거지 반응을 기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것이고, 마치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의 말씀 속에서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과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는 왜 하고 있는 겁니까?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유언을 하게 되는 근거에요, 근거.
디모데의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총정리 해주는가 하면, '네 인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질 것이다'
이게 참 보통 귀중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디모데가 젊은 사람으로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여생이 있지 않겠어요?
사도바울을 이제 죽을 겁니다, 그걸 자기가 알아요.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6, 7절 말씀을 하시잖아요.
디모데 인생의 길을, 측량사들이 길을 만들 때 동서남북과 위도 경도, 모든 걸 다 측량해서 저쪽 지점으로 향해서 길이 가야 된다는 걸 측량해내듯이 디모데의 여생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측량해주고 있는 겁니다.

측량해주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훌륭한 목회를 향해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을 때, 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에 아들에게 훈계를 할 때, '내가 물려

주는 사업을 잘 하려면…' 하고 훌륭한 사업에로 도달할 길을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바울은, 네가 여생을 어떻게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으로 연결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에 염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디모데 인생의 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예수님 재림에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2천 년 전에 죽었어도, 죽었을 때의 그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2천 년의 시간적 갭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디모데가 봤으면 기절할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는 문화와 시간과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선한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한싸움을 싸운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간격을 없애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치고 들어오는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 제거해내는 것이 선한싸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것들을 제거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빗나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걸 막지 못할 때 악한싸움이 돼버립니다.
악한싸움은 내가 돈을 벌겠다고 마음에 돈을 집어넣으면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집어넣은 돈과의 간격이 있지 않겠어요? 이 간격을 제거하려는 게 악한싸움이에요.
내 자식을 잘 길러야지! 하고 자식의 잘 길러진 모습이 바깥의 현실 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내 마음속의 자식과의 거리를 제거하려는 게 악한싸움입니다.

자식을 기를 때 선한싸움은, 자식 때문에 하나님과 내 마음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식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선한싸움을 싸우는 것은, 나랏일 때문에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랏일에 대해 죽는 겁니다.
대통령이 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책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

에 대해서 죽는 것이 책임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식을 준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잘 기르라는 게 책임이 아니라, 자식에 대해 죽으므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없애라고 주어진 겁니다.
사업을 주셨으면 사업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 죽으므로 사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세상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한싸움을 싸워가지고 내 마음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랏일 때문에 걱정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간격을 십자가로 제거하고, 나라보다 하나님이 먼저지, 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붙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랏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는 것, 이게 달려갈 길 다 가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 죽어서 자식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좌파도 우파도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이 세상을 떠나는데, 좌파 우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한 사람에게도 좌파 같은 행동을 하게도 하시고 우파 같은 행동을 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달려갈 길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는 건 결국은 이렇게 삶으로써 선한싸움을 해서 마음과 하나님과의 간격을 없애고, 십자가주님을 따라가므로, 세상에 대해 죽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꽂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선한싸움이죠.
그렇게 선한싸움으로 끝납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뜻을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나를 움직여 가십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보니까,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린 상태에서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선한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선한싸움을 싸운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랏일이 걱정이 돼서 나랏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께 간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 죽고, 선한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너는 단지 직무를 다하라는 얘깁니다.
분명히 과녁을 벗어난 마음들이 스스로가 과녁이 되어서, 내가 지금 가려워 죽겠는데 누가 이 가려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 없습니까? 라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듣고 싶은 말을 향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래도 분명히 그런 와중에 하늘의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너의 주관적인 마음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내키든 안 내키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들 중에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로 가는 선한싸움을 날마다 기꺼이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만족도 성과도 하나님 한 분 가지면 끝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내 일은 그냥 선한싸움에서 하나님 얻는 것,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갈 길 다 가게 되고 결국은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끝없이 주님의 십자

가 연쇄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들과 안 둔 자들이 확연히 구분될 때, 예수님의 우편에 분류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의 상태로 깨어날 테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세월호에서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만 죽었습니까?
여섯 살짜리 오빠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5살짜리 여동생에게 벗어주고 죽었어요.
여섯 살짜리도 죽고, 열일곱 열여덟 살짜리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네가 생활화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너도 듣는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 때를 위해 충분히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스스로 과녁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것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떡하든지 십자가를 놓쳐선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적중하게 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녁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고는 귀가 가려워서 자꾸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말씀이 와서 꽂히기를 바라며 다른 교훈과 다른 말씀을 쫓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